연극을 사랑한 '명배우' 6명이 만나다

'우리동네 명배우전'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 두번째부터 연출을 맡은 김민호, 윤미란·강유미·이현기·윤희철·한중곤씨.

극단Y '우리동네 명배우 열전' 기획시리즈

한중곤·윤희철 '늙은 코미디언의 이야기'
강유미·윤미란 17~19일 '잘 자요, 엄마!'
박규상·이현기 28~29일 '동물원 이야기'

연극이 좋아, 무대가 좋아 배우로 살아간 세월은 때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극단 시민, 드라마스튜디오 등 지역 극단들은 그들을 키운 텃밭이었다. 객석에 앉아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환호했던 관객들은 든든한 후원자였다.

광주 지역 연극배우들을 조명하는 기획이 눈길을 끈다. 척박한 지역 연극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극계를 지켜온 이들을 기억하는 프로젝트다.

극단 Y가 수십년 동안 지역 무대를 빛낸 연극 배우 6명을 초청, '우리동네 명배우 열전'을 진행중이다. 6명의 배우는 다양한 조합으로 한 무대에 선 경험들도 많지만, 이번 열전 시리즈에서는 두명씩 짝을 이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첫번째 무대를 장식한 이는 35년 넘는 세월, 무대를 지켜온 한중곤(57), 윤희철(55)씨였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말 공연된 '늙은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통해 멋진 연기를 보여줬다. 한 씨는 연출도 직접 맡았다.

바톤을 이어받는 이는 여배우 강유미(48), 윤미란(45)씨다. 두 사람은 2인극 '잘 자요, 엄마!'(17~1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호흡을 맞춘다.

1991년 극단 시민의 '가스펠'로 데뷔한 강씨는 주로 무대 의상을 만드는 스텝으로 활동하며 조역을 맡아왔다. 데뷔 초기에는 주로 뮤지컬을 중심으로 춤과 노래에 빠졌고, 배우 박규상씨와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주역으로 무대에 선 '어머니'를 통해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한 여인의 고단한 삶을 보여줬다. 많은 작품에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등장은 작품에 액센트가 된다.

1992년 극단 '청춘'을 통해 연극배우가 된 윤씨는 결혼과 함께 공백기를 가졌다. 복귀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그녀는 '막차타고 노을보다', '꿈꾸는 해바라기' 등을 통해 만만찮은 연기력을 보여줬으며 2011년, 2012년 전국연극제 연기상도 수상했다. 또 광주에 전문 분장사가 없던 시절부터 따로 분장 공부를 해 많은 극단들의 스탭으로도 활동했다.

두 사람이 선보이는 작품은 마샤 너만 작 '잘 자요, 엄마!'는 여배우 2인극으로 명성이 높은 작품이다.

외딴 시골 마을. 딸 델마의 폭탄 선언이 터진다. "엄마, 나 두 시간 후에 자살할거야." 엄마는 딸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누군가의 죽음에 직면해서야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아프게 펼쳐지는 작품이다. 연출은 김민호 동신대 교수가 맡았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두 명의 우리동네 명배우는 박규상(53), 이현기(50)씨다.

1981년 극단 '공간 80'으로 데뷔한 박씨는 34년간 광주 연극계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극단 '사랑'과 옛 광주시립극단을 거쳐 극단 Y대표를 역임했다. 선굵은 연기가 인상적인 그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연극제와 광주연극제에서 여러 차례 연기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드라마스튜디오 출신이다. 첫 주역을 맡았던 '방줄' 공연이 끝나고 너무 힘들어 펑펑 울다 "두번 다시 연극을 하지 않겠다"고 극단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이후 30년 가까이 연극무대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연우랑'을 이끌고 러시아 랍빠극장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협업도 진행,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선보이는 작품은 에드워드 올비의 희곡 '동물원 이야기'(28~29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로 인간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부조리한 삶을 이야기한다.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 앉은 중년 사내는 책을 읽는 중이다. 이 때 한 남자가 자신이 동물원에 다녀왔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다. 한참 동안 남자의 이야기를 듣던 중년 사내가 돌아가려하자 남자는 갑자기 시비를 걸고 칼을 던지며 그 칼을 집어들고 싸우자고 이야기한다. 박씨가 직접 연출도 맡았다.

문의 070-4250-599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경숙은 문학권력이 만들어낸 괴물"

표절 사태 끝장토론회

"동조·방관한 문단 반성해야"

한국 문단에 파문을 일으킨 신경숙 소설가 표절 논란과 '문학 권력'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끝장 토론회가 15일 서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열렸다.

'신경숙 표절 사태와 한국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문화연대와 인문학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했으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문학 권력' 문제를 비판해온 작가와 문학평론가, 국어국문학자 등 10여 명이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았다. 하지만 '문학 권력'의 핵심 구성원으로 지목된 창비와 문학동네 편집위원은 참석을 거부했다. 1부 토론 '신경숙 표절 사태의 진실 찾기'에서 발제한 정문순 문학평론가는 문학의 대서사와 거대 담론이 무너진 1990년대에 나지막하고 모성적인 인상을 주는 신씨의 작품이 문단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앙받으면서 신경숙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앞서 2000년에 신경숙의 단편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한 것이라고 먼저 주장한 평론가다.

정씨는 "신씨 작품에서 드러나는 무수한 맞춤법 오류, 비문, 말줄임표나 쉼표의 남발 등은 신씨 스스로 문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글쓰기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신씨가 상습 표절을 저지르는 '괴물'이 될 때까지 문학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해 온 셈이니 이제 와서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우봉 이매방 무용대회' 24일 목포 문예회관

목포시와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는 전통춤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한 '제10회 우봉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를 24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연 참가신청은 23일까지 전국 중·고·대학생·일반부·명무부를 대상으로 받는다. 경연부문은 전통춤, 창작무용, 단체무 등이다. 각 부문 우수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데, 특히 명무부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대회 10주년을 기념하여 목포시립무용단의 '태평성대'와 지난해 명무부 대상 수상자 하연화씨의 축하공연도 갖는다.

또 25~26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중견 무용예술인, 무용지도자, 전공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에서 제17회 살풀이춤 연수회를 개최한다.

우봉 이매방 선생은 올해 89세로 중요

우봉 이매방 선생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80여년 동안 외길인생을 살아온 목포가 낳은 무용계의 거목이다.

문의사항 http://www.leemae-bang.com. 02-2298-7001, 010-5358-2705.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문화재단 21일까지 문화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현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5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역문화현장에서 문화프로그램 기획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모에 최종 선정돼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광주문화재단을 포함해 ▲광주비엔날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립미술관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센터 ▲광주디자인센터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발전연구원 등 광주지역 8개 문화예술유관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수강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현장 실무 실습 기회도 갖도록 했다.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0~21일 이메일(jar7179@naver.com)로 접수 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3.

/오광록기자 kroh@